우리꽃 소식지는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 내용 및 사진자료는 무단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 우리넷 News

3 2004 March

Homepage:http://www.우리꽃.kr (www.uriseed.com) Vol. 08

발행일 2004년 3월 1일 통권 8호 | 월간 발행인 박공영 | 발행처 우리꽃 |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467-872) | Tel. 031-634-7990 | Fax. 031-634-7991 | 디자인 및 인쇄 아트프린팅(02-805-8874)

'우리꽃'이 혼합식재라는 개념을 제안(우리넷뉴스 2003년 8월호)하고 난 이후 많은 분들이 그 적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앞으로 연중기획으로 혼합식재된 식물과 그 혼합식재의 주제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편집자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변식물은 몇 종이나 될까? 현장이 다를 때 마다 새로운 수변식물을 하나씩 만이라도 더 적용해 보는 것은 ...**

필자가 혼합식재의 개념을 제안 후 의미는 전달되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한 사례를 보고자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2월호부터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2월호를 받아보신 분들의 많은 격려를 받고 보니 한편으로는 과분한 호응에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우리의 조경현장이 더욱아름답고 좋은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호는 아주 작은 연못 주변의 혼합식재 개념을 스케치 하고자 한다.

우리는 최근 수변식물과 옥상식물 그리고 락가든 식물 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매우 많아지고 있는 것을 절감하며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스케치를 하고자 한다.

주제사진은 2002년 6월 16일 촬영한 사진이다.

이 현장의 주제는 단연 아이리스류로 표현되는 전형적인 단순하면서도 기능성을 살린 현장이다.

이 연못은 지형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적인 습지형태를 갖는데 따라서 물의 토양표면구간(수변구간)이 인공적인 시트 혹은 방수 연못과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복적으로 Iris(붓꽃류) 품종을 화색별로 시기별로 꽃피는 시기를 두고 식재하였으며 물에 가까운 가장자리 일수록 이끼의 자람이 왕성한 모습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꽃창포 등 아이리스 류는 수변식물이긴 하지만 수중식물은 아니다. 따라서 물이 잘기는 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육이 떨어짐을 알아야 한다. 다만 제비붓꽃류, 노랑꽃창포 등은 낮은 물속에서도 생육이 좋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앞쪽 만병초를 기점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서 있게 설명하고자한다.

우선 만병초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육은 잘되나 여름에 서늘하고 통풍이 좋은 곳을 좋아하므로 굳이 적용한다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만약 산 높은 곳에 위치한 골프장은 더욱 적용하기가 유리하다.

앞쪽의 아이리스는 중국 및 일본 남부에 많이 자생하는 상록성의 아이리스로 우리나라 중부이북에서는 월동에 문제가 있는 품종이다.

그리고 현재 사진에는 나타나고 있지않지만 벌앵초와 옥잠류가 심겨져 있을 것이다.

이질풀

8시에서9시 사이에 있는 하얀 꽃을 가진 식물은 도깨비부채(*Rodgersia podophylla*)라는 식물인데 이 식물은 음지 수변식물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품종이 많이 분화되어 있다. 이 식물은 뒤쪽에 교목(귀룽나무)이 있어 음지가 됨을알 수 있다.

도깨비부채를 앞뒤로(물 쪽으로) 황고비(고사리류)와 대황(*Rheum undulatum* : 마디풀과로 물 주변에 사는 소리쟁이 종류로 대형식물)을 심어 물가까이는 많은 음지이고 나무쪽은 양지임(토양수분은 매우 높은 곳)을 알 수가 있다.

11시 방향까지 도깨비부채가 연속적으로 배경이 되어주고 앞쪽으로 노랑꽃창포와 기타 다른 꽃창포 종류로 다시 한번 아이리스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집작컨대 이쯤해서 아스팔베(노루오줌)가 군식되어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시 방향의 좌우로는 화려한 벌앵초가 대표적으로 이용되어 매우 화려함을 연출하고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키가 좀 작게 잔잔한 색을 발산하고 있는 것은 이질풀이고 아이리스 품종이 계속연결을 하고있다.

눈여겨 볼 것은 뒤쪽으로 빨갛게 수놓은 종류는 무엇일까? 바로 붉은꽃범무가 수변에서 장미를 대신해 매우 화려한 색을 만들어 내고 있다.

1시에서 4시까지 가려진 부분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니 상상을 해보시라. 참고로 이 구역은 물의 퇴로가 있는 구역이다.

4시방향의 주 포인트 식물은 노랑꽃창포가 좀 큰 군락으로 식재되어있고 물안쪽까지 연결되어있다.

그리고 노랑꽃창포의 무늬종이 또 다른 포인트로 이용되었으며 앞쪽 5시 방향은 방동사니류와 사초류가 자리 잡고 가장 바깥언저리는 천축류가 버티고 있다.

참고로 이 사진은 깊에서 숲속을 보면서 촬영한 것으로 햇빛은 1시 방향으로 비쳐진다.

종합하면 우리가 수변식물이니 생태연못이니 하면서 현재 시도하고 있는 방향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조경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큰 무리의 식물패턴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할 자리에 그 무엇인가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번호에서 우리는 우리가 즐겨 사용하지 않은 두 가지의 대형식물을 접했다. 하나는 도깨비부채류이고 하나는 대황이라는 대형식물이 그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변식물은 몇 종이나 될까?

어떤 종류도 적절한 자리에 적용 해야하지만 더욱 좋은 경관연출의 소재가 된다. 항상 이용 하는 소재 외에 현장이 다를 때 마다 식물소재(수변식물)를 하나씩 만이라도 더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붉은꽃범무

도깨비부채

Contents


| | | | |
|---|---|---|---|
| 2면 | 열린마당/연재 | 6면 | 현장리포트/광고 |
| 3면 | 2004 관심집중 포인트식물 | 7면 | 사람과 조경/지상중계 |
| 4면,5면 |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 8면 | 기획특집 |

열린마당

# 우리 농업의 붕괴 보고만 있을 것인가?

광주 화훼수출협의회 회장 안 홍 균

제네바 쌀 개방 협상 문제책임을 지고 당시 허신행농림부장관 교체는 우리에게 가슴아픈 일로 남아있다.

그리고 오늘 FTA협상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는 정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오래 전부터예견된 일이였고 준비할 수도 있는 시간을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정부는 10년 동안 11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농촌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믿는 농민은 별로 없다. 더 이상은 나아질 것이 없다고판단하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 전부터 꽃 농사를 지으며 농림부에 화훼공판장 경매제도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건의를 한 적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1송이 규격으로 경매를 하고 그 경매장에서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단으로 경매를 하고, 이 단 경매마저 그 숫자는 각각 다르고 해서 국제경쟁력은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농림부에 우리도 송이경매를 시작하자고 정책건의를 했었다. 답변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아직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질 않았다고 하는 답변에 참으로 안타까운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송이 경매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면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지 무슨 사회적 분위기를 찾으려 하는지 참으로 씁쓸하다.

농업의 문제가 비단이 문제뿐 아니지만 이런 작은 정책도 반영이 안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이제정부를 바라만보고 있을때는 이미늦어버린 것같다.

지금 우리 농업이 살길은 첫째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둘째 수출농업, 셋째 관광농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농산물 생산만이 국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우리 농업을 스스로 지키자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

수출농업은 고품질 생산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이다. 농산물 수출은 그 어느 수출 품목보다도 부가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원자재 배용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적게들고 우리에게는 일본이라는 판매처가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관광농업은 도시인들의 삭막한 콘크리트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을 농촌의 정서적인 고향에서 찾고자한다.

인간의 뿌리와도 같은 흙 냄새, 체험농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성장가능성이 크다고할 수있다.

우리가 하는 농업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앞으로의 농업은발전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나 어떻게해 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오히려우리를 후퇴시키고만다.

농업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순수하게 열심히 농업에 종사해주신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금의 지식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젊은 농군들이 힘을 합하여 국가를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이 난국을헤쳐 나갔으면 한다.

업그레이드 고급소재

겨울에도 상록의 아름다운 무늬

# 실유카무늬종

무늬종시리즈 ②

유카 골든서드

우리나라에서 중부지방에 식재하는 지피류중상록으로 나는 대표적인 수종 특히 대형수종으로 실유카(*Yucca smalliana*)라는 식물이있다.

특히 겨울에 상록으로 나므로 많은 관심과 즐겨 이용되고 있고 대체로 생육이 강하고 6~7월에 대형의 하얀 꽃을 피워 이국적인 정취를 만들어내는 식물이다.

사실 유카속 식물은 종류가 매우 많은데 내한성이 문제가 있어 무분별하게 적용할 수 는 없다.

그러나 내한성이매우 강하고 잎의 무늬가 좋은 품종이 있다.

노란무늬가 안쪽으로 선명하게 들어간 골든서드(*Yucca flaccida 'Golden Sword'*)란 품종과 브라이트에찌(*Yucca filamentosa 'Bright Edge'*)라는 품종이 있다.

물론 유카의 다른 품종도 좋은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내한성이 검증되지 않은 품종들이다.

골든서드와 브라이트에찌 모두일반적으로 국내에 심고 있는 실유카와 흡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골든서드는 잎길이가 55cm정도로 자라고 꽃이 피면 약 150cm정도가 되고 흰 꽃이며 포기가 커지면 약 150cm까지 된다.

잎의 가운데를 따라 노란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겨울에도 매우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브라이트에찌는 잎길이가 75cm정도로 더 크고 나머지는 골든서드와 비슷하지만 무늬가 잎의 바깥으로 약간은 좁게 노랑 띠가 들어간 무늬를 가지며 겨울에는약간의 붉은 빛을 띤다. 두품종 모두 내한성이 강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며 특히 잔디밭이나 소나무 등과 잘 어울리는 식물이다.

유카는 토양적응폭이 매우 넓지만 되도록 양지를 좋아하고 건조와 습기는 가리지 않아 빛만 잘 비추어지면 어디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다.

우선은 가격이 비싼점 등이 있으므로 겨울에도 상록의 무늬를 즐길 수 있는 포인트식물로 적용해보기를 권장한다.

유카 골든서드

유카 브라이트에찌

## Q&A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본 란은 '우리꽃'에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 FAQ형식으로 발췌했습니다.

**Q:** 법면에 억새로 조경을 하고자 합니다. 씨드스프레이를 이용할지 묘를 식재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A:**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묘를 식재해야겠지만 대면적인 경우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씨드스프레이를 하거나 좀 더 빠른 효과를 보고자한다면 ㎡당 약 9본정도 식재하고 그 위에 씨드스프레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연과 수련을 심으려고하는데 적정한 수심을 비롯하여 효과적인 식재방법이나 주의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그생장초기에는 수심이 10~15cm정도면 좋고 생육중기에는 20~30cm정도가 적합합니다. 식재는 뿌리가 잘 드는곳을 선택해야 하며 이른봄 일이 나기전에 하는 것이 좋으나 여름철에 하여도 무난합니다. 묘 식재시 혹은 생장중기에 적정한 시비를 통해서 더 많은 화려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Q:** 여기는 골프장이라는 특성상 꽃이 지고난뒤에도 잎이 깨끗하면서도 관상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품종은?

**A:** 이미 우리주위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각종 무늬종 등이 좋으며 그 외에도 상록성의 왕상록 매랭이, 안테미스, 카펫매랭이, 블루홀세덤, 단풍세덤, 아라비스, 계란꽃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일꽃꽃, 매발톱류, 잔디매랭이, 황금리시마키아, 옥잠류 등이 좋습니다.

(우리꽃 홈페이지(www.우리꽃.kr)에 궁금하신점을 올려주시면 빠른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2004 관심집중 포인트 식물

# 새로운 인기몰이, 강렬한 대형의 화려함

# 구근 다알리아

다알리아는 우리에게 사실은 매우 친숙한 식물이다. 국내에 도입된 시기가 매우 오래되었고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종자파종에 의한 1년초 개념의 다알리아이다.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구근 다알리아다. 다알리아는 화색이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다. 장미와 연꽃, 모단, 구근베고니아 등을 모두 합쳐 놓은 듯한 화려함 때문이다.

최근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신품종의 다알리아들은 이전의 화려함은 물론 꽃의 크기와 화색 그리고 개화시기를 연중 가능하게하여 현장여건에 알맞게 적용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재배되고 있는 구근 다알리아는 거의 100여종에 가깝고 꽃의 직경 또한 종에 따라 다양하다.

다알리아 대륜종

대형종은 꽃의 둘레가 20인치(약 50cm)이상과 중형 10~20인치(약 25~50cm) 그리고 소형 10인치(약 25cm)이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로 구근다알리아는 중형이상이다.

따라서 대형은 키가 약 100cm 정도로 크고 중형은 대체로 약75cm 정도이나 최근 국내에 도입된 다알리아 글로리품종은 키가 25~30cm 정도로 작은품종도 있다.

화색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화려하므로 포인트 식물로는 물론화분, 화단용으로도 매우 좋다.

꽃이 크고 계속해서 피므로 되도록 적당한 수분과 함께 기름진 토양에서 더욱 생육이 좋으므로 잘 썩은 퇴비를 많이 준다.

이제 현장의 아름다움을 고급스런아름다움으로 한단계 상승시키는 구근다알리아를 적용해보는 즐거움도 경험해보자.

수중, 수변식물의 올바른 이해 - 현재 ②

수변식물의 화려한 대안식물

# 크로크스미아

수변식물이라 함은 우리는 물에 견디는 힘이 강한 식물을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물의많고 적음에는 별관심이 없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크로크스미아(*Crocosmia masoniorum*)는 구근의 형태로 자라는 식물이며 개화습성은 글라디올러스와 비슷하다.

구근식물중 내한성이 매우 강하고 물에 강해 수변지의 화려한 대안식물로 감히 추천하고자 한다.

일부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의 섬과 제주도에 많이 퍼져 있는 식물로 꽃이아름답고 증식이 매우 빠른식물이다.

그러나이 식물은 국내 순수종이 아닌 외래종으로 남아프리카 원산의 다년초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종등은 내한성이 약간 낮은 편이나 새롭게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신품종들은 매우 내한성과 번식이 강해어떤 지역에서는 경계를 확실히 한 다음 식재를 해야할 정도이다.

주로 물가에서 생육이 왕성하지만 일반나지 혹은 약간의 건조지에서도 생육이 강해 아름다운 꽃만아니라면 아주 듭쓸 잡초로 인식되어 질 정도로번식과 생육이 왕성하다.

잎은 붓꽃과 흡사하지만 더욱 힘 있고 정갈한 맛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5품종이 재배되고 있는데 노랑과 주황 그리고 빨강으로 대표된다.

이른 봄에 꽃피는식물 등과 혼합식재가 유리하고 특히 금낭화, 동의나물, 추식구근 등 이른봄에 꽃을 피우고여름에 생육이 급격히 떨어지는 종류와함께 식재하면 좋다.

꽃은 보통6월에서 7월까지 지칠 정도로피는데그 이후에도 잎이 아름다워 매우관심이가는 품목이다.

식재기준은 ㎡당 25본 정도면 첫해부터 화려한꽃차례를 볼 수 있고 준공기간이 많이 남았거나 하면 16본 정도만 심어도 좋은 효과를볼 수있다.

이 식물은 반드시 경계원스를 쳐 주는 것이 다른 식물의관리에도움이 된다.

그러나 넓은 면적에 가득심어 놓으면 아마도 지금까지 느껴 보지 못한 장관이 연출될 것이며 물빛과 혹은 초록과 어우러진 모습은 정말 절정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다.

관리가 매우 쉬운 반면 혼합식재를 하거나 기타 식물과 경계를 두고 식재할 경우에는 차라리 화분 혹은 항아리 등에 넣어서 그 용기째 땅에 묻어 식재하는 것이 현명한방법이다.

구근이긴 하나 평속 뿌리줄기를 기듯이하여 번식하므로번식속도가 매우 빠르다. 다만 음지에는 다소 약하며고자리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토양살충제 등을잘 뿌리고식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꽃이 밑에서부터 위로 피어오르며 잎과꽃대가 튼튼하여 절화용으로도 전망이 밝은 종류이다.

정원 혹은 넓은 면적에식재, 아침마다 한아름씩 꽃대를 잘라 선물하거나 꽃병에 꽃아 두어도 정원의꽃밭도는 즐어들지 않을 정도이다.

우리꽃

# 이달의 현장히트 품종

우량의 향토종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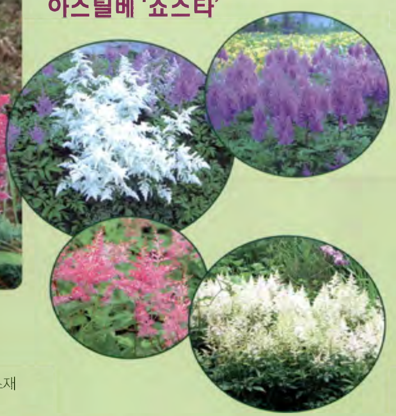
## 흰붓꽃

***화색이 깨끗한 토종의 아름다움***

1. 노랑색이 섞인 흰색의 꽃잎은 매우 화려하다.
2. 생육이 강해 수변지 및 어떤장소에도 좋다.
3. 뿌리엉김이 좋아 법면경사지 등의 조경에 매우 화려하다
4. 다른 붓꽃류와 혼식해도 좋다.

촛불형의 키작은 노루오줌

## 아스틸베 '쇼스타'



***아름다운 꽃과 잎의 조화***

1. 화색이 다양하고 잎의 광택이 좋다.
2. 초형이 아담하면서도 밝고 화려하다.
3. 수변공간을 비롯, 정원 등의 안성맞춤 조경소재
4. 분화용으로도 알맞은 소재

이국적인 아름다움

## 디기탈리스

***목조, 전원주택 등의 건물과 궁합***

1. 생육이 강한 디기탈리스 선발종
2. 꽃의 볼륨이 크고 화려하여 뒷줄 식물로 양호
3. 화기가 길고 화려한 고급종
4. 골프장, 정원, 공원 등에 잘어울릴수 있는 최고의 소재

눈속의 아름다운 이색 연출

## 크리스마스 로즈

***겨울을 즐기는 새로운 소재***

1. 겨울에 꽃을 피우는 이색적인 조경소재
2. 분홍색,녹색 등 화색이 다양하다.
3. 공원,정원 등에 겨울의 포인트 식물로 좋다.
4. 아름다운 꽃이 겨울부터 늦봄까지 개화.

건조에 강한 상록의 물결

## 아우브리에타

***락가든 용의 아름다운 소재***

1. 건조에 강하고 피복력이 뛰어나다.
2. 옥상조경용 소재로도 좋다.
3.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4. 포복형의 상록의 봄식물

전혀 새로운 개념의 신소재

## 발레리안

***음양지, 건습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1.꽃이 조밀하고 아름답다.
2.활엽수아래는 물론 바위절개지에도 생육이 좋다.
3.잎의 모양도 뛰어난 전천후 조경소재

최고의 옹벽, 차폐용소재

## 눈붉은찔레

***위에서 아래로 빨강의 식물폭포***

1. 국내 땅찔레를 개량한 최상의 향토수종
2. 자람이 빨라 옹벽, 암사면, 울타리녹화 1년이면 OK(1년에 15m)
3. 절간이 짧고 마디마디 꽃대형성, 온통 붉은바다.
4. 중앙분리대 등에도 좋다.

본 란에 소개되는 품종은 지금시기에 식재하거나 감상하기에 좋은 품종으로 식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십시오



아름다운 꽃과 잎의 파노라마

## 이질풀

지피력이 좋은 장기개화형

1. 우리 환경에 알맞은 품종
2. 중금속오염도를 경감시키는 환경식물

음지의 빠른지피

## 무늬엔젤리카

화려한 무늬의 잎과 꽃

1. 습기가 많은 여름철 최고의 수변식물
2. 잎자체만으로도 연중 아름다운 경관 연출

화려한 장미형 꽃뱀무

## 붉은꽃뱀무

화색이 아름다운 강한 지피

1. 큰겹꽃으로 재배가 쉽고 강하다.
2. 장미형의 붉은꽃은 매우 화려하다.

새롭게 선보이는 매발톱

## 매발톱 '까메오'

봄과 함께하는 최상의 선택

1. 키작은 매발톱으로 꽃과 잎이 모두 좋다.
2. 공원, 골프장, 전원주택등 최상의 봄식물

한국적 아름다움의 표준

## 왜성제비고깔

색의 고급스러운 여름진주

1. 키작은 제비고깔로 생육양호
2. 화기가 대체로 긴품종

상록의 귀족 수변식물

## 물사초 '골드밴드'

아름다운 초형의 대표식물

1. 무늬가 매우 아름답고 질감이 뛰어나다.
2. 생육이 왕성하고 포기형성이 좋아 독립수로도 좋다.

봄, 벌개미취라 불러도 좋다

## 구름국화 '봄비'

키작고 화려한 꽃무리

1. 봄에 피는 아름다운 벌개미취 형의 국화
2. 화색이 다양한 최고의 화단식물

건조에 강한 그린 방석

## 개미자리

답압(밟힘)에 매우 강한 신소재

1. 상록의 포복성의 잎은 매우 조밀하고 강건하다.
2. 건조에 강해 옥상조경 등에 좋다.

상록의 노란색 마가렛

## 안테미스

아름다운 다화성의 꽃무리

1. 노란색의 꽃은 매우 밝고 깨끗하다.
2. 공원, 도로변, 골프장 등에 좋다.

나비들의 황홀한 잔치

## 가우라

화려하고 장기개화

1. 꽃이 6월부터 서리올 때까지 장기개화형
2. 대면적의 식재를 통한 경관연출에도 유리

화려한 대형무늬종

## 칸나 '황금'

수변공간에도 OK

1. 생육이 빠르고 무늬결이 매우 아름답다.
2. 대형 연못의 수변식물로 으뜸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잔디같은 패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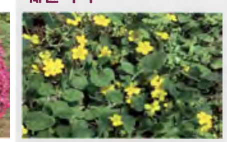
## 잔디패랭이

화색이 좋고 피복력이 최상

1. 최근 국내 신품종 소재중 최고 인기종
2. 고급조경의 기본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잎이 두껍고 조밀한 최고의 지피소재

## 웨델리아



포복성의 양음지 식물

1. 생육이 강건하고 지피력이 뛰어나다.
2. 장기개화하는 노랑색의 꽃이 절경.

물위를 기어다니는 새로운 수중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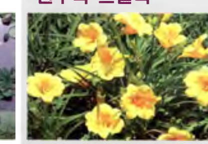
## 물아카시아

수질정화에서 쉬운 뒤처리까지

1. 생장이 빨라 1년에 15m이상 자란다.
2. 관상가치 뿐만 아니라 그 기능성면에서 월등한 수중식물.

봄부터 가을까지

## 원추리 '스텔라'



키가 작은 최상의 연중개화종

1. 꽃이 탐스럽고 화수가 많다.
2.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화색이 매우 다양하고 아름다운 겹꽃

## 개량목단

현재 **50품종** 출하 준비

1. 꽃이 크고 화려하다.
2. 화색과 화형이 다양하다.
3. 공원,도로변 등에 알맞은 화려한 봄꽃.
4. 특히 겹꽃으로 정원의 포인트식물로 최고
5. 목단은 부귀, 영화를 의미하는 최고의 선물
6. 하자발생 예방을 위해 뿌리돌림을 확실히 한 화분재배

현장리포트-금호베스트빌(수지)

# 아파트내 새로운 공간연출

불과 몇 년전까지만하도 아파트조경은 단지 준공을 위한 기본적인 수목식재와 하층부의 잔디처리로 일관되어 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래들어 녹지공간의 확대와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공간들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면서아파트조경에 대한 인식또한 많이 바뀌었다. 각종 시설물 뿐만아니라 조경소재자체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는추세가 되어가고있다. 도시화에 따른 녹지공간의 절대부족과 문명의 발전속에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좀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이 필요한 지금 이러한 현상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현장은 2002년 10월, 아파트내 친환경적인 법면처리와 광장에 지피원을 조성한 금호베스트빌 아파트 현장을 소개하고자한다.

수지 상현리에 위치한 금호베스트빌 아파트는 입주민들을 위한 편안하고 아늑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형조형소나무화단, 단풍나무로 꾸며진 산책로, 데크주차장 상단에 조성된 휴게공간,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 등 최적한 환경공간을 여러군데 조성을 했다. 그 중에서 '우리꽃'이 조성한 아파트내 법면과 파노라마 광장에 조성한 다양한 지피식물은 단연 입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부지조성시 훼손된 아파트 외곽의 약1000평의 법면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산책로를 겸비한 동산으로 조성한 뒤 동산의 전면적에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연중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자연스런 꽃동산을 조성하고자우리법면3호를 씨드스프레이하였다.

우리법면3호는 꽃이 종고한국자연에 알맞은 야생화26종이 알맞은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가 진행되어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며 연중 파종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씨드스프레이용 상품으로 계속적으로 큰 각광을 받고있다. 특히 전체조경을 담당하고 있는 (주)대경의 현장담당자는 이미 용인시의 전원주택단지인 금호향린동산에 우리법면 혼합종을 적용하여 뛰어난 경관연출을 통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경험하여 이번에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법면3호를 적용하였다. 우리법면혼합종시리즈는 약2~3주를 주기로 화색이 변하며 연속개화가 진행되는데 파종하는 시기에 따라 화색의 변화는 조금 차이가 있다. 금호베스트빌의 경우 10월에 파종이 이루어졌고그 이듬해 4월, 첫개화를 시작으로 연속개화가 진행되었다. 첫개화는 하얀색의 꽃물결로 시작되어 따시로운 봄기운을 느끼며 동산을 오가는 주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2주후 보라,분홍,노랑 등의 다양한 화색이 어우러지며 실로 꽃동산을 이루자 주민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경에 탄성을 자아냈다. 뒤 이어 진분홍의 화색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은 동산은 그자태를 한껏 뽐내면서 계속해서 연중 화려한 경관을 연출했다. 계획적으로 식재된 공간보다도 오히려 아름답고 자연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동산 앞쪽에 위치한 파노라마 광장 또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광장 양쪽에 지피원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가까이서 다양한 식물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곳에는 벌개미취,구절초,매발톱 등 우리자생초화류와 잔디패랭이, 개량원추리,황금리시마키아,벌노랑초,세덤류 등 다양한 품종을 포함하여 약40여품목이 식재되어졌다. 구간별로 화색과 화기를 고려하여 조성되어 다양한 지피식물들이 내보이는 조화속에서 계속해서 계절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또한 바로 보행로 옆에 조성되어 주민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게 했고아이들의 교육용으로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있으리라 본다.

야파트현장은 많은 주민들과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조경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앞으로 공간마다 특색있는 연출이 요구되어 지기도한다.

우리꽃의 다양한 품종들이 이러한 공간연출의 조경소재로써 활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하얀색의 꽃물결로 시작되는 4월초 첫 개화모습

2~3주후 다시 다양한 화색으로 바뀐모습

아파트 조경식등의 돌등식재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연출

우리법면혼합종시리즈는 약2~3주를 주기로 화색이 변하며 연속개화가 진행된다.

지상중계

이천연구소-1만 3천평의 생산.연구기지

# 겨울속의 봄 - 신품종생산

매서운 추위와 잊을만 하면 내리던 하얀눈도 2월중순으로 치달으며 그위세가 꺽이기 시작한다.

지금 이천연구소는식물원을 비롯한 각종 조경현장의담당자들과 새로이 생산에 종사하고자하는분들이 직접 생산현장을 체험하고 배우기 위해 짧게는 며칠간 길게는 한달동안 숙식을 하며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생산현장 곳곳을 누비며 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원들 또한 2004년도에도 더 나은 '우리꽃'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겨 놓고 있다.

### 전시포장준비

이미 말했듯이 올해 각종 다양한 품종들을 전시포장을 통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필드데회를 위한 기획,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물론 3월,해동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전시포장을 꾸미는 작업이 시작되겠지만 사전작업으로 전시포장에 들어갈 품목과 품종을 선정하고 전체적인 설계작업이 한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일인 만큼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담감과 아울러 기대감이 서로 교차하며 그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 다양한 품종의 개량목단

올해도 기존 품종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선보일 품종들에 대한 생산작업이 벌써부터 한창이다. 2월에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들을 따라가 보자.

목단은 고급조경수종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이 원산이며 중국은 실제로 유럽보다도 더 좋은 품종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우리꽃'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품종은 50여종으로 '우리꽃' 중국현지 법인의 직원들이 중국현지에서 좋은 품종만을 수집,엄선하였고 이를 토대로 계속 개량하여 지금의 50여품종을 갖추었다. 현재 목단은 중국현지 포장에서 생산하여 매년 1월경에 국내에 들여오는데 일반적으로 일부만 화분에 심고 매년 하우스에 가식했다가 해동이 되면 노지에 식재해왔는데 올부터는 가식했다가 다시옮기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노지에서 바로 캐서 현장에서 식재했을때의 하자예방을 위해 모두 7치 화분에 심었다. 그리고 각 품종별로 사진을 부착하여 꽃이 피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각의 품종의 화형과 화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내 최대 15품종의 개량후룩스

가끔식 생산에서도 늘 예상치못한일이 일어나곤 한다. '우리꽃'이 선보인 개량후룩스의 경우 각 품종별로 생산계획에 의거 적정량을 생산한다. 보통 그 다음해 판매할 물량은 가을에 포트작업을 - 일반적으로 후룩스는 분얼로 유통되지만 '우리꽃'에서는 포트로 재배하여 뿌리돌림을 확실히 한 후 출고한다 - 하고 추후 증가되는 물량을 위해 가을에 삽목하였다가 이듬에 봄에 포트작업을 해왔다. 그런데 봄부터 꾸준히 좋은 반응을 보여왔던 개량후룩스가 지난 가을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춥하가 되어 삽목묘를 예년보다 일찍 약 50,000개정도 포트작업이 이루어졌다. 뿌리돌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중비닐하우스에 작업을 한후 활대를 이용하여 다시 비닐을 씌워 빠른 활착을 유도하고 있다.

### 겨울속의 봄 '가온하우스'

겨울에도 계속 효율적으로 증식을 하기 위해 가온시설이 된 하우스에는 많은 품종들이 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선보이게 될 다알리아 30여품종은 빠른 증식을 위해(삽목) 포트작업되어 있으며 화려한 조경소재로써 새롭게 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꽃 뿐만아니라 잎자체로 관상가치 가 뛰어난 지피식물이 요구되어지므로 그러한 조경소재로써 무늬종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늬종에 대한 번식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조경소재로써 문양을 내기 위해서는 그 모양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바위솔계통이 최적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는 각처에서 수집한 바위솔품종이 하우스 한켠에서 환한미소를 띄우고 있다. 가온시설이 되어있는 수증식물 하우스에서는 물위를 기어다니는 새로운 개념의 수중식물인물이끼시아가 포트에서 활착되어 힘차게 줄기를 뻗기위해 숨을 고르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식물들이 가온하우스에서 때이른 겨울속의 봄을 느끼며 힘찬 도약을 준비중이다.

화훼에 상당한 50여품종의 목단

빠른 뿌리활착을 위해 비닐을 씌운 개량 후룩스 포트묘

다양한 바위솔 품종

수중하우스에 자생중인 물이끼시아

가온하우스에서 증식중인 30여종의 다알리아

농업회사 **광주전남우리꽃 설립**

## 광산구 화훼관광단지내-박지수씨 대표취임

야생화 업계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한 우리꽃은 보다 질높은 서비스와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과 제품을 문화와 풍요의 고장 광주 전남에 공급하고자 우리꽃의 지사격인 농업회사 광주전남우리꽃(대표 : 박지수 34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다.

특히 대표로 취임한 박지수씨는 전남대 농대를 졸업, 농촌으로 귀농한 젊은 영농후계자로 농업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서 조경용숙근초의 생육 생태를 잘아는 경영자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잘 알고 있어 님들보다 더 정확하고 효과좋은 기술까지도 제공할 것이다.

사무실은 최근 광주 전남의 화훼유통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른 광주 광산구의 화훼관광단지(대표이사 김명호)내에 전시매장과 함께 둘 계획이다.

앞으로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야생화 및 조경용숙근초 공급회사로써 성장할 것이며 예술과 풍요로운 광주, 전남의 문화에 알맞은 최상의 조경식물소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것이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21세기형의 조경식물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전남우리꽃이 할 일은 시대에 맞게 실력과 서비스의 질로 소비자에 다가설 것이다.

기획특집 한국 조경의 재발견

# 야생화 및 지피식물 적용의 새로운 이해 및 전망

우리나라의 조경 현장에서 이제 야생화 및 지피식물이 빠져서는 아파가가 되지 않을 만큼 업그레이드 된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 혹은 설계자의 올바른 식물특성의 이해가 부족하여 많은 현장에서 오히려 잔디와 철쭉을 처리하던 것보다 더 격이 낮고 버려진 경관 같은 현장을 가끔볼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따라서 10년이 경과된 야생화 및 지피식물의 올바른 적용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이해 및 전망을 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 1. 야생화 및 지피식물이 조경현장에서 식물소재로서 차지하는 비율

야생화와 지피식물이라는 의미의 혼돈을 막기 위해 이들을 통합한 조경용 소재라는 뜻으로 지금 부터는 '숙근지피식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우리끼리는 통일하겠다.

그러면 숙근지피식물이 우리의 조경현장에서 식물소재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금액으로 본다면 ㎡당 평균 25~30본을 본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25000원~30000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잔디의 평균 ㎡당 가격인 3200원에 비해 거의 10배에 해당하고 철쭉 혹은 화양목의 15000~20000원에 비하여도 높다고 본다.

아는 숙근초가 웬만한 관목보다도 가격이 비쌀 뿐만아니라 수량도 훨씬 많이 소요되므로 전체적인 비율로 본다면 관목시장을 앞서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 2. 숙근지피식물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

최근의 각종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생태공원이나 시민공원 혹은 역사공원 등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중심에 숙근지피식물을 이용하는 이미지 상승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건축물의 조경에 소재의 다양성 및 친환경적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아파트 조경비를 얼마를 더 쓰면 분양가를 주변시세에 비해 더 올려도 된다는 속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골프장의 업그레이드 구성과 저변확대의 맞물려 더욱 차별화된 전략적 모색으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주5일제를 겨냥한 레저산업의 발전 전망으로 수목원, 식물원, 관광농원까지 국가 혹은 개인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현장에 이르기 까지 아주 다양화 되고 있다.

▲ 추식구근은 개화도 쉽고 이를 봄부터 개화한다.

▲ 식물의 특성에 알맞게 적용하면 한층 고급화된경관연출이 가능해진다.

### 3. 숙근지피식물의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

이제 숙근지피식물의 현장적용은 피할 수 없는 발전된 분위기이다. 그러나 서두에 말했듯 국내 유통되는 약 500여종이상의 식물특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지도 모른다.

우리꽃 연구소를 찾는 많은 분들의 한결 같은 하소연 비슷한 애로사항은 "나무는 알겠는데 숙근지피식물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설계는 해야하므로 도감이나 남들이 해 놓은 설계를 참조해서 적용하는 예가 많다는 것이

식물의 특성을 고려한 식재

그들의 속내이고 보면 우리 조경현장의 다양한 공간연출과 질 높은 식물의 적용은 아직 요원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아직은 식물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않은 설계로 인하여 조성후 1년도 되지 않아 땅표면이 노출되거나 식물이 죽은 불결한 현장을 가끔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복수초나 깽깽이, 복주머니, 얼레지, 앵초, 노루귀 등 이른 봄 식물의 경우 내공해성 혹은 내환경성이 약해 매년 반복되는 하자를 겪거나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식재하게 된다.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생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해야 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품목은 대부분 재배도 곤란하거니와 번식에도 어려움이 있어 신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계자와 발주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 따라서 필자는 사회적 합의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합의는 조경현장은 물론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과 자원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른 봄 식물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는 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비용도 저렴하고 관리도 쉬우며 화려한 추식구근을 이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꽃이 '우리넷'을 매달 비용을 들여가며 발행하는 것은 조경소재의 다양한 적용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공간연출의 가능성을 보여주므로써 한국조경이 한단계 발전된은 물론이고 우리꽃도 더불어 발전하기를 바램에서이다.

## — 춘식구근 특성 및 주문표 —

| 품목 | 화기(월) | 화색 | 키 | 식재수(㎡) | 최소주문량 | 월동유무 |
|---|---|---|---|---|---|---|
| 익시아 | 6~8월 | 혼합 | 45 | 100 | 1000 | – |
| 아이리스 | 6월 | 혼합 | 60 | 100 | 1000 | 가능 |
| 저먼아이리스 | 5~6월 | 혼합 | 60 | 25 | 300 | 가능 |
| 바바아나 | 5~6월 | 보라, 분홍 | 30 | 100 | 1000 | – |
| 크로커스미아 | 7~9월 | 빨강 주황 노랑 | 60 | 50 | 1000 | 가능 |
| 다알리아 | 6~10월 | 혼합 | 25~100 | 16~6본 | 200 | – |
| 후리지아 | 6~10월 | 혼합 | 40 | 80 | 1000 | – |
| 글라디올러스 | 6~9월 | 혼합 | 50~120 | 100~50본 | 1000 | – |
| 하부란투스 | 8~9월 | 빨강 | 10 | 100 | 1000 | – |
| 백합류 | 6~8월 | 혼합 | 50~120 | 20~30본 | 500 | 가능 |
| 티그리디아 | 7~9월 | 분홍, 노랑 | 40~60 | 60 | 1000 | – |
| 칸나 황금 | 7~10월 | 주황 | 150 | 9 | 100 | – |
| 칸나 파초 | 7~10월 | 빨강 | 300 | 6 | 50 | – |
| 니포비아 | 7~10월 | 노랑 주황 빨강 | 50~100 | 20 | 100 | 가능 |
| 리아트리스 | 7~10월 | 분홍 | 70 | 25 | 300 | 가능 |
| 알스트로메리아 | 5~9월 | 혼합 | 70 | 25 | 300 | – |
| 아네모에코로니리아 | 5~7월 | 혼합 | 30 | 80 | 1000 | 가능 |
| 구근베고니아 | 6~10월 | 혼합 | 30 | 20 | 200 | – |

**춘식구근 지금 주문하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라며 좋은 정관 연출의 포인트식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것입니다.

(3월중 주문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품목은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주문바랍니다.)

신소재-옥상용식물 ②

### 아름다운 매트형의 새로운 식물

## 금강애기기린초

금강애기기린초는 우리꽃이 개발한 세덤으로 섬기린초와 애기기린초의 특성을 혼합한 듯한 특성을 가진다.

금강애기기린초의 가장 큰 장점은 조밀한 매트를 이루는 초형과 세덤류중 물에 견디는 힘이 매우 좋고 매트가 형성되면 다른 잡초 등의 침범이 거의 불가능하다.

꽃은 노랗게 피는데 5~7월에 걸쳐 장기개화하고 꽃이 지면 그 종자 꼬투리가 빨갛게 물들며 익어 꽃이 핀 듯하여 11월 서리가 올 때까지 꽃이 핀 듯 느껴져 앞으로 많은 현장에서 인기있는 조경식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습해에 견디는 힘도 강하므로 잔디밭 주변 등 어떤 지역에 식재해도 좋은 소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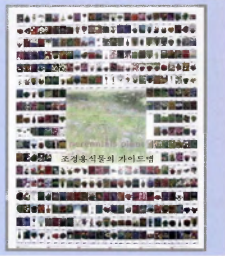
우리꽃이 개발한 또 하나의 괘거이다.

1㎡당 25~50본 정도가 좋다.


한 장에 OK! 우리꽃 대형 포스터!!!
'우리꽃' 지피식물의 모든 것!
3월중 배포합니다.

500여종 지피식물의 특성 및 사진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약주문받습니다.
가격:10,000원 (택배비포함)




여러분들의 자발적 구독요금 후원을 기다립니다.

지정된 계좌에 금액에 상관없이 구독/후원을 하시려면

농협 : 235100-56-071562

예금주 : 박광영 (우리꽃 대표 및 소식지 발행인)

(현재누적금액 : 46만원)